

“친정엄마, 눈 밝을 때 제 시집 읽고 싶다 하셨죠”

문학들 신인상 김애숙 3년만에 첫 시집 '백 타는 남자' 발간

삼십대 후반부터 문학에 관심 가져
15년 넘게 창작 기울이다 보니 등단 문 열려
삶에 대한 성찰·여성성 등 일상의 모습 담겨
“시란 꿈과 현실의 경계, 나를 찾아가는 과정”



“등골에 맺히는 / 페인트 냄새를 삼키며 / 백을 탄다는 건, 스스로 살아온 날들을 펼쳐 / 우주에 몸을 맡기며 현실 너머의 그 세계를 / 꿈꾸듯 색을 칠하는 일 // 햇빛과 바람은 허공에 지문을 찍고 / 남자는 이 벽

저 벽을 옮겨 다니며 색을 칠한다.”(‘백 타는 남자’ 중에서)

표제지 ‘백 타는 남자’가 주는 울림이 간단치 않은 것은 화자의 눈에 비친 남자의 모습 때문이다. ‘온 힘을 다해 거미가 한 줄의 실을 뽑아내듯이 허공에 매달려 붓질을 하는 장면’은 엄숙하면서도 아슬아슬하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화자의 예리한 눈이 직시한다. 험겨운 일상을 사는 많은 이들의 모습이 ‘빠아픈 성찰을 화두로 삼은 수도승’ 같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번 시집에서는 ‘명암한 장’, ‘어떤 기록’, ‘비석’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세상과 타협한 수백 번의 한숨이 소인처럼 찍힌”, “기록 앞에선 그저 침묵해야 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시인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시는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시를 정의하는 것’이라는 파블로 네루다의 말을 빌려 물었다.

“시란 꿈과 현실의 경계가 아닐까 싶어요. 어찌 보면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색깔로 진정성 있는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성악가 앙상블 '리클라쎬'

일렉트로 팝·성악...장르 상관없이 무대 꾸민다

‘타운매거진’ 23일 ‘리클라쎬’ 초청 공연

장르 상관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실력파 음악인의 무대를 선보이는 ‘타운매거진’ 올해 첫 공연이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일렉트로닉 하우스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 ‘킹스타운’이 기획·제작한 ‘타운매거진’ 공연은 지난해 1월 첫선을 보였다. 이후 광주와 대구에서 일렉트로 팝, 성악, 토이 피아노 등 다양한 무대로 3개월 마다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이 공연은 타운매거진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townmagazine45)와 유튜브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날 공연은 광주음악창작소 뮤지션 인큐베이팅 동상(2017년)을 받은 일렉트로 팝 듀오 원보들의 무대로 시작한

다. 이어남성 성악가 앙상블 리클라쎬가 1시간여 동안 무대를 꾸민다. 이 그룹은 이성구·윤승환·이상규·구본진·황태경(테너), 오유석·최은석(바리톤), 이세영(베이스)으로 구성됐다. 이탈리아·독일·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외 오페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오페라 솔리스트들이 결성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관람 후 후원할 수 있다. 관람 신청을 하려면 전자우편(kingstown45@naver.com)에 이름·연락처·방청인원을 보내면 된다. 오는 5월25일에는 전주판소리합창단이 무대에 선다. 문의 010-7759-820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움직임으로 표현한 언어·음악 ‘오이리트미’

27일 ‘녹음’ 공연

오이리트미 앙상블 ‘녹음(NogM)이 오는 27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을 연다.

한국에서 아직 생소한 동작예술인 오이리트미(Eurythmie)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리듬’

‘아름다운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언어와 음악을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발드르프 교육의 창시자인 독일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가 창안, 1912년 선보였다.

‘녹음’은 독일 비텐에서 오이리트미와 언어조형을 공부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만든 소규모 앙상블이다. ‘녹음’은 지난날 ‘귀천’을 주제로 새로운 오이리트미 작품을 선보이는 등 한국의 시와 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는 오이리트미스트, 언어조형예술가, 피아니스트, 조명예술가와 객원연주자, 무대예술가가 있다.

이날 공연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 음악을 가리키는 ‘레퀴



예술 창작집단 앙상블 ‘녹음’의 공연 모습.

엠’을 주제로 한다. 광주발드르프교육예술센터가 주관한 이번 공연에서는 오이리트미스트 서석훈, 정나란, 정은희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야금 연주자, 합창반주자, 연극배우 신동호씨 등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클라리와 슈만·바흐·니체·괴테·천상병·기형도·김시습·황병기 등의 작품을 다룬다.

정나란씨는 “음악과 문학 텍스트를 공간 속에 빚깔과 움직임, 동선으로 옮겨 창작과정에서 일어났을 법한 힘을 보여내고자 한다”며 “음악과 시가 움직임 예술을 통해 무대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이해될 수 있는지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2만원. 문의 010-2624-017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명란 시세계·한수산 ‘군함도’ 등 다룬 논문집 일본서 출간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한국에서 바라본 전쟁과 문학’

일본 근대문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나쓰메 소세키의 진보적 활동과 문명란 시인의 시 세계, 한수산 작가의 ‘군함도’ 등을 다룬 논문집 ‘한국에서 바라본 전쟁과 문학’이 일본 현지서 출간돼 눈길을 끈다.

저자는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로, 김 교수는 9년 만에 3번째 논문집을 최근 일본에서 발간했다. 그동안 저자는 일본을 왕래하며 남도 출신 문명란 시인의 작품 번역과 연구에 매진해왔다.

이번 책에는 한수산 ‘군함도’에 관한 논고 외에 나쓰메 소세키의 논고 2편, 마쓰다 도키코의 논고 2편 등 모두 7편이 수록돼 있다. 또한 각 논문 뒤에는 학술지나 잡지 등에 발표된 문학탐방기도 실려 있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한일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

특히 한수산 ‘군함도’ 논고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비롯한

광주의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한수산 작가의 광주 강연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의 시점에서 출간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작가인 나쓰메 소세키를 연구해온 김 교수는 이번 책에서 작가의 만년에 주목했다.

나쓰메 소세키가 영면하기 1년 전 기록한 수필 ‘점두록’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그가 독일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세계대전 이아말로 인류 미래에 대한 좌약이라며 경종을 울린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일본의 양심적 작가로 불리는 마쓰다 도키코가 관심을 보인 징용 피해자의 테마에 조선인의 문제가 은폐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마쓰다 도키코가 한국인 징용자 11명과 일본인 노동자 11명이 일본의 전범기업에 의해 생매장당한 현장을 방문, 사건의 배경과 실체를 보고문 형식으로 파해



친 ‘하나오카 사건 회고문’을 분석, 고찰했다.

이번 책은 아이치교육대학 나야 마사히로 교수에 의해 ‘평화학 입문’ 강좌의 텍스트로 채택돼 일본의 대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김 교수는 “우경화된 일본 사회를 외부의 시선,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비참한 전쟁과 무력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하고 과거의 불행이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외 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

문화전당서 성료...협력방안 논의

‘2019 재외 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이하 ACC)에서 최근 1박 2일 동안 개최됐다.

ACC는 전 세계 한국문화원 32곳과 재외공관 9곳에서 한국문화 홍보와 우리 정부의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들을 초청해 ACC를 소개하고 ACC와 해외 한국문화원·재외공관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ACC는 아카이브 구축, 콘텐츠 해외유통 및 홍보, 각종 문화예술기관 네트워크 구축, 레지던스 프로그램 홍보, 아시아문화주간 추진 등에 관한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재외 한국문화원장들은 ACC의 융·복합 콘텐츠가 해외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길 희망했다.

이진식 ACC 전당장 직무대리는 “한국문화원 및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콘텐츠유통 및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조상 양복점 서구 상무리로 6 김대중센터 마루역 옆 50년 전통 결혼 예복 및 특수양복 맞춤 전문기능사 디자인 기술로 몸에 맞게 맞춰드립니다. ☎062-374-7369, 010-7269-736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기 ☎010-9277-2011, 010-4624-8457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그 집 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 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 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아맨션 건너편) ☎062)251-8400